

광주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편견에 옵니다”

뇌병변장애인·다문화가정 여성·성소수자 등 10명 심층 인터뷰 광주시·시민단체 ‘들리지 않는 외침’ 발간... ‘약자의 삶’ 조명

“편견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10명의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들의 바램이 담긴 책이 발간됐다.
이들은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편견에 갇혀 괴로워하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고 있었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인 ‘광주 인권지기 활짝’과 함께 광주에서 일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 ‘들리지 않는 외침’을 최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광주시 인권단체 협력단체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장애인 ▲탈가정 청소년 ▲이주민 ▲성소수자 ▲불안정 노동자 등 5개 분야에서 2명씩의 광주시민 심층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목격했다. 사회적 약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며 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담겼기 때문이다.
각자 다른 이유와 다른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면서도 냉담한 주변의 시선속에서 도움의 손길조차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화순지역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시설에서는 장애인을 돈으로 보고 때리고 독방에 가두기까지 했다. 9년만에 여기서 나오기까지 과정은 너무나 고달팠다”고 회상했다.
A씨는 사회에 나와 자립의 삶이 너무나 좋았지

만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갓난아이를 키우기가 역부족이라 영아일시보호소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보호소 사람들은 바로 “입양을 보내실거냐”고 물었고 A씨는 아이를 끝까지 키우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빠지지 않고 보호소를 찾아갔고 1년만에 다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을 딸로 둔 엄마 B씨의 삶도 평탄치는 않았다. 딸이 발달장애를 가진 것을 알게되자 남편은 술에 의지하게 됐고, 수년을 매년 대학생 학비 정도를 치료비에 쏟아도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가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선생님들조차 장애를 이유로 괴롭혔고 주변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심했다. 부모라는 이유로 B씨는 항상 굶겨리는 자세로 학교를 찾아가기 바빴고 한때는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부모의 학대와 친척의 성추행을 피해 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청소년 C씨는 온전히 자립해 전남지역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삼촌의 성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가족들은 중학생 3학년이던 C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했다. C씨는 “(내가) 어떤 일(성추행 등)을 당하고 있고 어디에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집에서 온전히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생이 된 청년, 18살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과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올해 아들과 함께 대학에 들어가는 결혼이주 여성, 탈북민 엄마의 행복을 바라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이야기도 담

졌다.
성 소수자로 광주에서 살고 있는 2명은 당선이 성소수자라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노조 정관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불안정한 노동을 하면서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흔한 가정들의 고민과 치열한 삶의 모습도 담겼다.
해군 소령에서 자영업을 거쳐 배달라이더로 전업한 30대 가장과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비정규직 노동운동가로 변신한 워킹맘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책을 집필한 박은영 광주인권지기 상임활동가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편견속에 갇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과 제도적 정책 마련과 더불어 광주에서 먼저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노르딕워킹으로 건강하게

광주시 북구보건소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4일 북구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워킹 연습을 하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전남대, 중외공원, 산동고, 두암근린공원 등 4곳에서 노르딕워킹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여수·순천서도 SRT 고속철 탄다

국토부 9월부터 운행

올 추석부터는 여수와 순천에서 SRT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을 오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경부·호남고속선에에서만 운행되던 SRT 운행 노선을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9월부터 전라선(순천·여수), 경전선(창원·진주), 동해선(포항) 등을 경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RT는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 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노선을 확대하기로 밝힌 데 이어 운영 주제, 대상 노선, 운행 시기 등을 구체화

한 결과다.
그동안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는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없어 동대구역·익산역 등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 1시간 내외 강남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운행 노선을 확대하면 전라·경전·동해선 지역 주민 38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고속철도 및 준고속철도의 신설 사업 등을 통해 국가철도망을 구축해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시동

광주시, TF 꾸려 본격 논의

일제 강제동원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달할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역사관) 건립에 시동이 걸렸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청 12층 세미나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대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협의회’(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팀은 민간 단체와 학계 관계자,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민모임 사무실에는 고(故)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생산하고 수집한 총 7건의 대일 소송 기록과 소송 과정에서 생산한 10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각종 진술서, 편지 및 증거자료, 영상물을 비롯해 이 회장의 일기장과 활동기록 등 약 1149건의 자료가 비치돼 있었다.
하지만 일반 사무실에 오래된 자료들이 쌓여있

다 보니 변색되거나 보관 과정에서 일부 훼손이 진행돼 역사관을 건립해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광주시가 직접 TF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역사관 건립을 기본으로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대일 항쟁 정신 계승 사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역사관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역사관 이름, 설립 장소 등을 논의했으며 광주시 관계자들에게 육성녹음 등 역사적 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차 번째 안의 문제점을 누구나 알고 있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지난 시간 문재인 정부가 노력한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광주시는 피해자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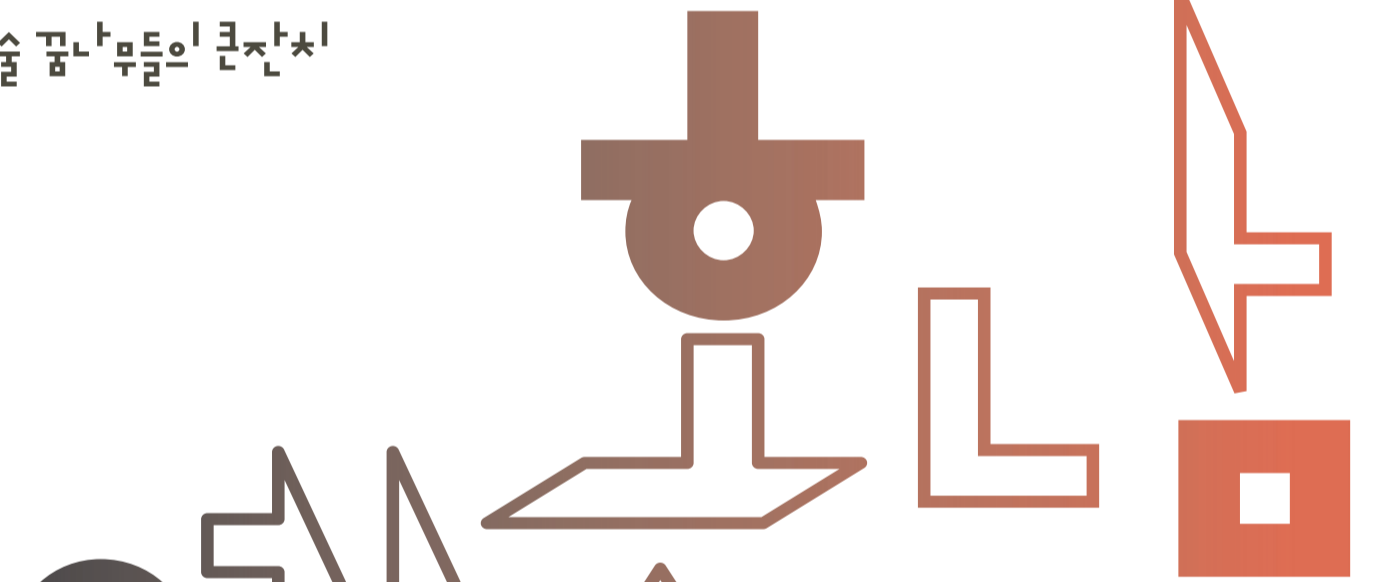
영산강환경정, 캠핑장 5월까지 특별점검

영산강유역환경정은 불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캠핑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캠핑장 내 하수처리시설 부실 운영과 폐기물 불법 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계절별 캠핑 성수기를 고려해 봄(4~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등 3차례에 걸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까지의 영산강과 지류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캠핑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정장은 “캠핑장 관리 부실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충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제 68회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2023.
4.26수 - 7.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 **신청기간**
- 음악·무용·국악 부문
2023. 4. 6(목) - 4. 12(수)
- 미술·작문 부문
2023. 7. 3(월) - 7. 6(목)
- **참자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경연기간**
4월 26일(수) ~ 7월 6일(목)
-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자세한 내용은 대외요강 참조)
- **접수방법**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 (우 61482)
- **인터넷 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23년 4월 19일(수)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사항**
개인 및 단체 :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 **문의**
062-220-0541
-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